

# 일본 헤이안문학에 나타난 「해질녘(夕暮れ)」

南二淑\*

---

## 目次

---

- I. 첫머리에
  - II. 연정을 환기시키는 시간대
  - III. 고독감과 무상감을 자아내는 시간대
  - IV.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시간대
  - V. 끝머리에
- 
- 

## I. 첫머리에

이즈미시키부 가집에 「五十首」라는 대규모의 연작이 있다. 이 대작을 읊은 이유를 작가는 연작의 서문에서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생각나는 것들을 써 모았더니 이 또한 노래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つれづれの尽きせぬままに、おぼゆる事を書き集めたる、歌にこそ似たれ)」고 언급하면서, 「낮엔 그리워하고, 해질 무렵엔 임이 오시나 기다리고, 초저녁엔 연모하고, 한밤중에 깨어 있고, 새벽녘엔 사랑한다. (昼偲ぶ 夕べの眺め 宵の思ひ 夜中の寝覚め 暁の恋)」라는 노래 제목을 소개하고 있다. 1)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소치노미야를 여윈 슬픔을 하루의 특정한 시간대인 「昼·夕べ·宵·夜中·暁」와 「그리워하다·기다리다·사모하다·깨

---

\* 군산대 교수 일본고전문학

1) 이즈미시키부 와카의 인용은 伊藤博·久保木哲夫氏編 『和泉式部集全集—本文と総索引』 (貴重本刊行会)에 의함

어있다·사랑하다」라는 연사를 짝지어 노래했다. 그녀는 이같이 짝지은 노래를 각 시간대 별로 십여 수씩 배열해 매우 독창적인 형태의 정수가(定數歌)를 완성해 이채를 발하고 있다.

일본의 현대 대중가요 가운데 N·S·P가 부른 「해질 무렵은 쓸쓸할 것 같아(夕暮れ時はさびしろう)」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作詞：天野滋)

가사 중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골의 독 제방, 해질 무렵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을까.  
산보하는 건 좋지만 서로 기댈 사람이 필요한 법  
그녀가 있으면 나도 쓸쓸한 기분은 안 들 텐데…  
해질 무렵은 쓸쓸한 것 같아 혼자서 지낼 수 없다.  
( 田舎の堤防、夕暮れ時にぼんやりベンチに、すわるのか、  
散歩するのもいいけれど、寄り添う人が欲しいもの  
あの娘がいれば僕だって淋しい気持ちにゃならないさ  
夕暮れ時はさびしろう とっても一人じゃ、いられない )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질 무렵은 쓸쓸할 것 같아 혼자서 지낼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후렴구에서 이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히라오카 토시오(平岡敏夫)씨의 지적에 의하면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의 소설 작품의 대부분은 「해질 무렵(夕暮れ)」이라는 시간대로 시작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해질녘(夕暮れ)」이라는 시간대는 일본인들에게는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틀림없다.<sup>2)</sup>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주로 일본 헤이안 문학 작품을 통해 「해질녘(夕暮れ)」이란 시간대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표현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정을 환기시키는 시간대

「해질녘(夕暮れ)」은 해가 지며 어둑어둑 밤이 시작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해질녘(夕暮れ)」이라는 시간대에 관한 선행논문은 平岡敏夫씨의 <「王朝物語 の<夕暮>」 『国際日本文学研究集會會議録(第20回)』 国文学研究資料館 1996>의 논문과 河添房江씨의<「源氏物語における夕べ」 『むらさき19』 武蔵野書院 1982년>란 논문이 있다. 전자는 아쿠다가와의 작품이 헤이안 왕조 모노가타리인 『今昔物語』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으며, 후자는 『源氏物語』 속의 <夕べ>란 용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과 관계가 깊음을 고찰하고 있다.

『만요슈(万葉集)』에는 「由布倍」「入り日」「夕闇」「夕」「暮」라는 표기로 된 노래들이 많이 검색된다. 그러나 이들 노래 전부가 연정과 깊이 관계된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가집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들이 불렀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수 한 수 살펴보기로 하자. 3)

904 …わが子ふるひは 明星の あくる朝は しきたへの 床の辺さらず たてれども をれども  
 ともにたはふれ ゆふつつの 夕べになればいざねよと てをたづきはり…

(…우리 아이 후루히는 새벽별 남아 있는 아침에는 베개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같이 놀고 해질녘이 되면 함께 자자하고 손을 붙잡고…)

1069 常はさね思は濡ものをこの月の過ぎ隠らまく惜しき夕べかも  
 (평소 때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이 달이 숨어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안타까운 저녁 무렵이구나.)

그밖에 「よひ」「夕」「暮」란 시어를 이용한 노래가 있다. 먼저 「夕」를 넣어 부른 노래에 관해 살펴보자.

730 あはむ夜はいつもあらむをなにすとかその夕あひてことのしげきも  
 (만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날 해질 무렵 만나 소문이 자자해졌지?)

1712 天の原くもなき夕(よひ)にぬばたまの夜渡る月の入らまく惜しも  
 (넓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초저녁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지는 것이 아깝다.)

1762 明日の夕逢はざらめやもしひきの山彦とよめ呼びたて鳴くも  
 (내일 해질녘 사랑하는 이와 만날 수 있을까? 메아리칠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

다음으로 「暮」란 용어를 이용해 부른 노래에 관해 살펴보자.

60 暮に逢ひて朝面なみ名張りにか日長き妹がいほりせりけむ  
 (저녁에 만나 아침 부끄러워 숨는다고 하는 지명을 가진 나바리로 여행 떠난 당신은 한뼘잠을 자고 있겠지요.)

1536 暮に逢ひて朝面なみ名張り野の萩はもみちはや継げ  
 (저녁 무렵이 되어 나바리의 싸리는 저 버렸구나. 단풍이여 얼른 물들어라.)

이와 같이 살펴보면 904번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대, 1069, 1712는 떠오르는 달의 모습이 아름다운 시간대로, 1536은 꽃이 지는 시간대로 인식되고 있다. 연정을 환기시키는 시간대로 인식된 것은 60번과 1762번 정도이다. 이로 볼 때 『만요슈』에서는

3) 『만요슈』의 본문 와카 인용은 『万葉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6에 의함

「해질녘(夕暮れ)」이 아직 연정을 환기시키는 시간대로 정착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러면 최초의 칙찬 와카집인 『고킨슈(古今集)』(905년 성립)에 수록된 노래는 어떠한가. 『고킨슈』에는 「ゆふぐれ」, 「夕べ」의 시간대를 도입한 노래가 많다. 먼저 「ゆふぐれ」라는 용어를 사용한 노래에 관해 살펴보자.<sup>4)</sup>

- 484 夕ぐれは雲のはたてに物ぞ思ふあまそらなる人をこふとて  
(저녁하늘에 나부끼는 깃발 형태의 구름처럼 내 마음은 어지럽기만 하다.  
하늘 저편의 고귀한 분을 멀리서 연모하기에.)
- 515 唐衣日もゆふぐれになるときは返す返すぞ人はこひしき  
(오늘도 임이 오실 해질녘이 되었는데 이 시간이면 너무 임이 그리워 견  
디기 어렵다)
- 772 来めやとは思ふ物からひぐらしのなくゆふぐれは立ち待たれつつ  
(정말로 올까? 오지 않겠지 하지만 귀뚜라미 우는 저녁 무렵이 되면 기다  
리지 않고 못 배긴다.)
- 1103 来し時と恋ひつつをればゆふぐれのおもかげにのみ見えわたるかな  
(그 사람이 올 시간이지 하고 임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저녁 해 속에 그의  
그림자만이 떠오른다.)

다음은 「夕べ」를 도입한 노래들이다.

- 546 いつとてもこひしからずはあらねども秋のゆふべはあやしかりけり  
(어느 계절이든 임이 그리워 않은 계절은 없건만 가을 저녁 무렵이면 더  
욱 그리다.)
- 1001 あふことの まれなるいろに おもひそめ わが身はつねに……すみぞめのゆふべになれ  
ばひとりゐて あ はれあはれと なげきあまり せむすべなみに……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당신을 생각하면서부터 내 마음은 껄름  
이 없고 허전하기만 하다…… 어둠이 찾아드는 저녁 무렵에는 단지 혼  
자 앉아 한숨을 내쉬고 하릴없이 정자를 거닐면 이슬에 젖는다.)

1103번의 츠라유키(貫之)의 노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작자 미상의 노래이다. 모두 다 여성의 심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 「해질녘」이란 시간대는 「임 생각이 더해지는 시간」, 「임이 오실 시간」,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시간」, 「임이 방문해주는 시간」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당대의 혼인제도가 남성이 여성을 방문하는 「가요이콘(通い婚)」이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도 방문해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노래들이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546의 와카에 「가을 해질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신고킨슈(新古今集)』에 이르러 특정한 미감을 자아내는 시어로 자주 애송된다.

4) 『고킨슈(古今集)』이하 8대集의 본문 와카 인용도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에 의함.

다음에 두 번째 칙찬집인 『고센슈(後撰集)』을 살펴보자.

- 510 来や来やとまつ夕暮れと今はとて帰る朝といづれまされり  
 (올까 하고 기다리는 해질녘과 자고 새벽에 돌아가는 아침 어느 쪽이 나  
 을까?)
- 739 夕さればわが身のみこそかなしけれいづれの方に枕定めむ  
 (저녁이 지나면 슬기만 하다. 어느 쪽으로 베개를 두어야 할지.)
- 1062 夕さればおもひぞ繁き待つ人の来むや来じやの定めなければ  
 (해질 무렵만 되면 생각이 무성해진다. 기다리는 이가 올지 어떨지 모르  
 기 때문에.)

「夕暮れ」란 임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노래가 많다. 당시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슈이슈(拾遺集)』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다.

- 478 夕されば衣手寒しわぎもこが解き洗ひ衣行きてはや着む  
 (해질 무렵이 되면 소맷자락이 추워진다. 얼른 돌아가 아내가 손질해 놓  
 은 옷을 입고 싶다.)
- 722 いつしかと暮れを待つ間の大空は曇るさへこそうれしかりけれ  
 (언제 어두워지나? 어둠을 기다릴 때는 구름 끼는 것조차 기쁘기만 하다.)
- 725 うつつにも夢にも人に夜しあへば暮れゆくばかりうれしきはなし  
 (생사에서건 꿈에서건 밤에 만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 1197 暮ればとて行て語らむ逢ふ事のとをちの里の住みうかりしも  
 (날이 어두워지지만 빨리 찾아가 이야기하자. 만날 길이 멀다고 하는  
 <도치노 사토>에서 지내기는 어렵구나.)

「夕暮れ」는 남성들의 노래에서는 아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시간대로, 여성들의 노래에서는 임을 만나는 기쁨으로 더욱 빨리 어두워 지기를 바라는 시간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이안 중기를 대표하는 여류가인들의 노래에도 여전히 연정을 호소하는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즈미시키키부의 노래를 살펴보자.

- 113 よも山のしげきをみればかなしくしかなきぬべき秋の夕暮れ  
 (사슴이 짝을 찾아 우는 가을의 해질녘은 더욱 슬프다.)
- 264 夕暮のあはれはいたくまざりけり日ひとひ物は思ひつれども  
 (하루 종일 임 생각으로 수심에 잠겨 있지만 해질녘에는 더하다.)

하루 중에서도 <해질녘>이란 시간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고, 사슴

이라도 우는 가을의 <해질녘>은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지는 시간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 Ⅲ. 고독감과 무상감을 자아내는 시간대

평생 말단 관료로 지내면서 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보낸 소네노 요시타다(曾根好忠)의 가집 『好忠集』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sup>5)</sup>

119 日暮るれば下葉こぐらき木のもとの恐ろしき秋の夕暮れ  
(어둑해지면 무성해진 나무 밑은 무섭기만 한 해질녘이구나.)

고대인이 느끼는 해질녘은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바와는 큰 낙차가 있었던 모양이다. 마루야마 겐지의 <소설가의 각오>란 에세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sup>6)</sup>

“달이 떠 있든 떠 있지 않든 산촌의 밤에는 무시무시함이 떠다닌다. 도시에서는 밤이 시간을 두고 점차 깊어가지만, 산촌의 밤은 해가 떨어진 순간 깊은 수조 가득 채워진 물이 느닷없이 일시에 빠져 나가는 것 같은 놀람과 함께 찾아온다. 낮과 밤의 차이가 터무니없이 크고 자연이 자아내는 밤의 요기에 압도된 나는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잠 한숨 이루지 못한다.”

밤을 재촉하는 해질녘에 대한 고대인의 생각은 이처럼 무서움과 놀라움이 함께 찾아오는 시간대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해질녘」이란 시간대를 읊은 노래에는 쓸쓸함과 고독감이 배어 있는 노래가 상당히 많다. 가장 오래된 노래는 『만요슈(万葉集)』의 山上憶良의 노래이다. 「悲歎俗道仮合即離，易去難留詩」라는 제목으로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96 …世に恒の質なし，所以に陵谷もかはり，人に定まれる期なし，所以に寿夭も同じからず。撃目の間に，百歳もすでに尽き，申臂の頃に千代も亦空し。且には席上の主と作り，夕べには泉下の客と為る。白馬走り来るとも黄泉にいかにか及かむ。  
(세상에는 영구불변의 본질이라는 것이 없다. 때문에 언덕이 계곡이 되고 계곡이 언덕이 되기도 한다. 사람도 또한 정해진 수명이 없기 때문에 장수와 요절의 차가 있는 법이다. 순식간에 백 살이 되고 기지개를 켜는 동안에 천년이란 세월이 지나간다. 아침 동안에 연희의 주인으로 행세해

5) 好忠; 생몰년 미상, 대체로 923~1003년으로 추정되고 있음

6) 마루야마 겐지 지음 김난주 옮김 『소설가의 각오』 문학동네 1999 16p

도 저녁 무렵에는 황천의 객이 된다. 백마의 발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황천 가는 속도에 비할 수는 없다.)

이 노래의 서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교적 무상관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文選의 「朝為媚少年 夕暮成醜老」(卷二十二 詠懷詩十七首 阮嗣宗)이나 백씨문집의 「朝露貪夕利 夕陽憂子孫」(卷二 不致仕)란 시구의 영향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도 【夕霧】卷 「夕の露のかかるほどのむさぼりよ」 7)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아침이슬(朝露)을 일부러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표현은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의 4160번 노래에서도 엿볼 수 있다.

4160 天地の遠き初めよ 世の中 常なきものと 語り継ぎ 流らへ来たり …朝の笑 夕変わらひ 吹く風の 見えぬがごとく 行く水の 止まらぬごとく 常もなく うつろふ見れば には たづみ 流るる涙 留めかねつも

(천지가 구분된 옛날부터 세상은 무상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드넓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떠 있는 달도 왔다가 이지러지고, 산의 나뭇가지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이슬을 맞고 단풍이 되어 바람에 섞여 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흥안은 초췌해지고, 검은 머리는 백발이 되고, 아침에 웃었던 얼굴이 해질녘에는 갑자기 달라져 불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흐르는 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덧없이 변하는 것을 보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다.)

노래의 제목도 「세상의 무상을 슬퍼하는 노래 한 수(世の無常を悲しぶる歌一首)」이다. 이 노래를 보면 무상감이란 이와 같이 중국문학의 영향이나 불교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인간이 생래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된다. 성장과 함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이와 같은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후대로 내려가면서도 이러한 경향의 노래는 계속 이어진다.

815 夕されば 人なき床を うち払ひ なげかむ ためとなれる 我身か(古今集)

(해질녘이 되면 사랑하는 이도 없는 쓸쓸한 잠자리의 먼지를 털어내며 탄식만 하고 있는 게 내 신세로구나.)

109 身のうきをつねはしらぬに あらねども なぐさめが たき春の 夕暮れ(重之女集)

(자신의 쓰라린 처지를 항상 모르는 건 아니나 기다릴 사람 없어 외로운 봄날 의 해질녘.)

7) 1008년 성립. 모두 3부 54첩으로 히카루 겐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본문 인용은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6에 의함. 『源氏物語(4)』 443p

## 4 秋はなほゆふまぐれこそたゝならぬおきのうはかせはきのしたつゆ(義孝集8)

(가을의 해질녘은 어느 때와 다르다. 역세에 부서지는 바람. 싸리에 맺힌 이슬.)

해질녘이란 시간대는 역시 다른 시간대보다 쓸쓸함과 고독이 더해지며 감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시간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헤이안 중기에 와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즈미시키부는 <夕べのながめ>란 제목 하에 10수의 연작을 완성했다. 그 10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続121 山のはに入る日を見ても思ひいづる涙にいとどくらさるかな  
(서녘으로 기우는 해를 보아도 임 생각하는 눈물로 더 괴롭게 지내는 요즘이구나.)
- 続122 今のまの命にかへて今日のごと明日の夕べを嘆かずもがな  
(곧 죽을 목숨으로 바꾸어 내일 저녁 무렵은 탄식하고 싶지 않다.)
- 続123 夕暮はいかなるときぞ目に見えぬ風の音さへあはれなるかな  
(해질녘은 어떠한 시간대인가. 바람소리조차도 애조를 띤다.)
- 続124 たぐひなく悲しきものは今はとて待たぬ夕べのながめなりけり  
(전례 없이 슬픈 시간은 그리워하는 이를 기다리지 못하는 저녁.)
- 続125 おのかじし日だに暮るれば飛ぶ鳥のいつかたにかは君をたづねむ  
(새들도 날이 어두우면 각각 갈 길을 가는데 난 어디로 나서 당신을 찾아야 할지.)
- 続126 夕暮は君が通ひし道もなく巣がける蜘蛛のいとぞかなしき  
(해질녘 당신이 오던 길에 거미줄이 걸려 있는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슬프다.)
- 続127 ひのやくと嘆く中にもいとせめてもの侘しきは夕まぐれかな  
(늘 탄식하며 살지만 가장 쓸쓸할 때는 해질녘이다.)
- 続128 忘れずは思ひおこせよ夕暮にみゆれば凄き遠の山影  
(잊지 않고 있으면 생각을 전해주소. 해질녘에 보니 고독감이 더욱 사무치는 산그림자구려. 그 밑에 잠든 임이시여.)
- 続129 夕暮は雲の景色を見るからに眺めじと思ふ心こそつけ  
(해질녘이 되면 구름만 바라봐도 그리움이 밀려와 이제 경치 같은 건 바라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쓰미치 친왕을 여의고 읊은 노래로 연정과 관계 깊은 노래가 많다. 그녀는 「해질녘」은 이미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모의 정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질녘이란 시간대는 이와 같은 감상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시간대인지도 모른다. 50수 이외의 다음 노래에서도 이러한 느낌은 잘 드러나 있다.



352 あはれなることをいふには人しれず物おもふ時の秋の夕暮

(웬지 서글픔을 자아내는 계절은 가을의 저녁 무렵.)

408 なぐさむる君もありとはおもへども猶夕暮はものぞ悲しき

(위로가 되는 당신도 있지만 해질녘은 웬지 사람을 슬프게 한다.)

그러면 산문인 『겐지모노가타리』의 경우는 어떠할까.

다음은 이야기의 발단으로 기리츠보 천황이 가장 좋아하는 후궁 기리쓰보노 고이(桐壺更衣)<sup>9)</sup>를 잃고 생전의 그녀를 그리워하는 장면이다. 제1첩에 수록되어 있다.

野分だちて、にはかに肌寒き夕暮のほど、常よりも思し出づること多くて、靱負命婦といふ者を遣わす。

夕月夜のをかききほどに出だし立てたまひて、やがてながめおはします。【桐壺】

(가을의 거센 바람이 불어 찬 기운이 느껴지는 해질녘 주상은 평소보다 고이에 관한 생각이 더 하고, 그리움이 깊어져 유게이 명부를 고이의 친정집으로 보낸다. 그리고 저녁달이 아름답게 나와 있을 무렵 밖으로 나와 한참 달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해질녘 찾아가 본 고이의 친정집은 잡초는 우거질 대로 우거져 있고, 형용할 수 없는 쓸쓸함과 슬픈 기운에 가득 차 있고,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たとしへなく静かなる夕の空をながめたまひて、奥の方は暗うものむつかしと、女も思ひたれば、端の簾をあげて添ひ伏したまへり。夕映えを見かはして女もかかる有り様を思ひの他にあやしき心地はしながら、よろづの嘆き忘れてすこしうちけゆく景色いとらうたし。【夕顔】

(비할 데 없이 조용한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 안쪽은 어둡고 음산해 지내기 어렵다고 겁을 내니 겐지도 발을 올리고 곁에 나란히 누웠다. 저녁노을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여자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된 것을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겐지도 모든 근심을 잊고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여자가 사랑스럽다고 보았다)

< 비오는 날의 여인의 품평회>에서 어리석은 여자의 예로 등장한 유가오와 겐지의 만남을 묘사한 장면이다. 유가오는 부모도 없이 혼자 지내는 여인으로 정분이 있는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 비할 바 없이 조용한 저녁 무렵 수줍어하고 연약한 여인인 유가오와 겐지가 만나는 장면이다. 8월 보름날 달 밝은 날 밤 남녀의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후 여주인공은 모노노케 원령에 썩

9) 헤이안 중기 이후 천황의 처첩제도는 황후(중궁)· 뇨고· 고이의 순이었다. 뇨고는 황후 다음의 위치로 천황의 침소에서 시중들던 고위직 여관으로 후에 황후로 책봉된다. 고이(更衣)는 뇨고 다음의 위치로 천황이 옷 갈아입는 일을 돕고 천황의 침소에서 시중드는 일을 했다.

어 죽는다. 이 밖에도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주인공으로 등장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무라사키노 우에(紫上)와 만나는 시간도 해질녘이다. 그녀 역시 임종 무렵에 이르러서는 출가를 원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작가인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가 「해질녘」이란 시간대에 상당히 집착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불길한 예감을 가져다주는 시간대로 작용하고 있다.

「해질녘」을 도입한 노래에는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비유해 인생무상과 막연한 불안을 야기하는 시간대로 형상화시키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만 확신할 수는 없다. 일본 최초의 수필인 세이쇼나곤의 『枕草子』의 제1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sup>10)</sup>

秋は夕暮. 夕日のさして山のはいとちかうなりたるにからすのねどころへ行くとて、みつよつ、ふたつみつなどとび急ぐ笹へあはれなり. まいて雁などのつらねたるが、いとちひさくみゆるはいとをかし.

(가을은 해질녘이 가장 좋다. 석양이 비치고 산봉우리가 가깝게 보일 때 까마귀가 등지를 향해 서너 마리 내지는 두 마리씩 떼 지어 날아가는 광경에는 가슴이 몽클해진다. 기러기가 줄지어 저 멀리로 날아가는 광경은 한층 더 정취가 있다.)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를 사계절에 할당해 각각의 풍경의 아름다움을 유니크하게 포착하고 있다. 당시 문학 중에 유례없이 간결한 문체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세이쇼나곤은 가을은 역시 해질녘이 정취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을의 해질녘은 웬지 서글픔을 자아내 사람을 고독감에 젖게 하지만 사람을 매료시키는 정취를 물씬 풍겨주는 시간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와카의 영향을 받은 타인지 『신고킨슈』에는 「秋の夕暮れ」를 읊은 노래가 열아홉 수나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노래는 널리 알려져 있다.

361 寂しさはその色としもなかりけりまき立つ山の秋の夕暮れ (寂蓮法師)  
(슬픔의 색깔은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해질녘 숲 속 풍경이 아닐까.)

가을 해질녘의 희미한 빛 속에 농담만의 식별이 가능한 수목화처럼 삼나무나 향나무가 들어선 산중은 천지자연이 정적에 싸여 견디기 어려운 고독한 그

10) 『枕草子』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 63p

립자를 드리우고 있다. 작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이런 산 속의 모습이 아닐까.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신고킨슈적인 세계의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저녁의 해질녘이란 시간대는 이와 같이 쓸쓸하지만 정취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간대라 인식되고 있다. 다음의 노래들 역시 같은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노래들이다.

- 362 心なき身にも哀れは知られけりしぎ立つ沢の秋の夕暮 (西行法師)  
(슬픔이나 쓸쓸함 같은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도 알 것 같다. 도요새 날아가는 물가의 가을날 해질녘.)
- 363 見わたせば花も紅葉もなかりけり浦のとまやの秋の夕暮 (藤原定家 朝臣)  
(둘러보면 꽃도 단풍도 다 저버렸구나. 쓸쓸하게 뜰집만이 남아 있는 가을의 해질녘.)

#### IV.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시간대

앞 장에서 언급한 이즈미시키부의 10수 연작 <夕べのながめ>의 첫 노래를 살펴보자.

- 続121 山のはに入る日を見ても思ひいづる涙にいとどくらさるかな  
(서녘으로 기우는 해를 보아도 임 생각하는 눈물로 더 괴롭게 지내는 요즘이구나.)

가장 사랑했던 아쓰미치 친왕을 잃고 부른 노래인데, 서녘으로 기우는 해를 저 세상으로 가버린 임에 비유하고 있다.

『만요슈』의 히토마로의 만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 207 …輕の道は我妹子が里にしあればねもころに 見卷く欲しけど止まず行かば人目也多  
み まねく行かば人知りぬべみ さね葛 後も逢はむと大船の思ひ頼みて玉かぎる磐垣  
淵の隠りのみ恋ひつつあるに渡る日の暮れぬるがごと照る月の雲隠ること 沖つ藻の  
なびきし妹は もみち葉の 過ぎて去にきと  
(가루노미치는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시간을 충분히 내어 만나고 싶지만 계속 찾게 되면 사람들 눈도 있고 자주 가면 사람들이 알 것 같아 나중에 만나자고 후일을 기약하여 이와가키 여울처럼 그리움 가득 차 있는데 하늘을 가로지르는 해가 서녘으로 기울 듯이 떠 있는 달이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듯이 해초처럼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지내던 아내는 덧없이 가버렸다.)

히토마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의 얘기를 듣고 아내가 자주 찾았던 가루노미치로 달려갔지만 우네비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처럼 아내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아내와 닮은 통행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고 긴 장가를 통해 절규하고 있다.

210 …頼めりし児らにはあれど世の中を背きし得ねばかぎろひのもゆる荒野に白たへの天領  
巾隠り鳥じもの朝立ちいまして入り日なすかくりにしかば吾妹子が形見に置けるみどり  
子の乞ひ泣くごとに 取り与ふる 物しなければ…

(의지했던 여자인데 세상의 도리를 배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거친 들에 새하얀 天人의 얇은 천에 폭 싸여 사라졌다. 닭도 아닌데 아침에 집을 나서 저녁 무렵에 유명을 달리하니 어린 아이는 조르며 울고 그때마다 줄 것 없으니…)

노래 내용은 죽은 아내와 함께 했던 별채에 어린 아이를 옆에 끼고 들러 보기도 하면서 자나 깨나 그녀 생각을 하며 지냈지만 만날 수가 없어 우가이 산중에 가면 죽은 이와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향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처의 죽음을 황혼과 밀접하게 관련된 낙양의 이미지에 비유하고 있다. 태양의 율동 표현이 빛어내는 장중한 분위기에 비견될 만큼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슬픈 일이었던 것이다.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아내가 먼저 죽어간 모습을 466의 노래에서 「…잠깐 거쳐 가는 인생이라 아침이슬이나 서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산 넘어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에 (…借れる身なれば露霜の消ゆるが如く足引きの山道をさして 入り日さす隠りにしか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표현이 사카노우에노 이라쓰메(坂上郎女)의 460의 노래에서는 신라에서 도래한 리관(理願)스님의 죽음을 「…산 넘어 저녁 어스름처럼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あしひきの山をさしてゆふ闇と隠りましぬれ…)」로 표현하고 있어 「ゆふ闇」란 시간대로 변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에서는 「해질녘(유우베)」란 용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먼저 「夕顔」卷 에 다음 부분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sup>11)</sup>

空の雲うち曇りて、風冷やかなるに、いといたくながめたまひて  
見し人の煙を雲とながむれば夕べの空もむつまじきかな  
と、独りごちたまへど、えさし答へも聞こえず。 12)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일 때인지라 겐지는 수심에 잠겨

11) 河添房江 「源氏物語における夕べ」 『むらさき19』 武蔵野書院 1982년 22p~26p 참조 이하 씨의 설을 많이 참고로 함.

12) (夕顔(1)262p)

나와 함께 한 그녀를 화장한 연기가 저 구름인가하고 보고 있자니 해질녘 하늘도 친근하게만 느껴지는구려 라고 혼잣말을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사랑스러운 여인 유가오가 돌연사한 충격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히카루 겐지는 해질녘의 구름에 가려 어두워진 하늘을 슬프게 바라보며 이 노래 한 수를 읊는다. 유가오를 화장시킨 연기를 구름으로 비유해 겐지 자신의 내면세계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혼자만의 시공간으로 펼쳐지고 그 해질녘의 노래를 애송하는 행위에 의해 죽은 자에 관한 상념을 체념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로 차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처럼 「해질녘」은 슬픔과 비통함을 완화시키고 치유해주는 다정한 하늘, 사별의 세례를 받아 무상의 바람이 이는 겐지의 영혼에 깃드는 시간대로 작용하고 있다.

「해질녘」이란 용례는 다음 松風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命尽きぬと聞こしめしすも、後の事思いとなむな。避らぬ別れに御心動かしたまふなと言ひ放つものから、「煙ともならぬ夕べまで若君の御ことをなむ、六時の勤めにもなほ心きたなくうちまぜはべりぬべき」とて、これにぞうちひそみぬる。 13)

(「내 목숨이 다했다고 들어도 내세를 비는 범회 같은 건 하지 마라. 피할 수 없는 사별에 마음을 움직이거나 하지 마라」라고 내뱉듯이 말하지만 「화장터의 연기가 되는 해질녘까지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와카기미를 위해 기도하련다」라고 말하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되었다.)

겐지의 환영을 받아 도움으로 향하는 아카시노 키미와 아버지 뉴도의 사별 장면이다. 뉴도는 사랑하는 외동딸에게 죽어서도 외손녀인 아카시노 히메기미를 후원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히메기미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 말은 나중에 와카나 조(若菜上)권에서는 실제로 꿈속에 뉴도가 나타나 왕권장악이라는 힘을 발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카시 뉴도가 죽어가는 「화장터 연기가 되는 해질녘」이란 표현이다. 화장(火葬)하는 시각을 「해질녘」이라고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 실제 당시 화장하는 시각이 「해질녘」이었던가? 아니다. 당시 장송(葬送)은 심야에 시작해 새벽에 합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은 아카시 뇨고(明石女御)가 황자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고 쓴 뉴도의 편지글의 일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若菜上卷의 다음 부분이다.

13) 『源氏物語(2)』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6 396p

14) 河添房江 「源氏物語における夕べ」 『むらさき19』 武蔵野書院 1982년 23p

遙かに西の方，十萬億の国隔てたる九品の上の望み疑いなくはべりぬれば，今はただ迎ふる蓮を待はべるほどその夕べまで水草清き山の末にて勤めはべらむとてなまかり入りぬる。15)

(단 하나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테니 멀리 서방 십 만 억토 떨어진 극락에 상품 상생<sup>16)</sup>으로 왕생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아미타여래가 와 주실 것을 기다릴 뿐이지만 그간 임종의 종말(해질녘)까지는 물과 풀이 깨끗한 산 속에서 정진하려고 산 속에 칩거해 있는 것이오.)

자신이 소원을 성취해 서방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확신한 외조부인 아카시 뉴도(明石入道)가 죽음을 맞이할 시간대를 「해질녘」으로 설정해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幻卷에 이르러서도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世のはかなくきを知らすべく，仏などのおきたまへる身なるべし，それを強いて知らぬ顔にながらふれば，かくいまはの夕近き末にいみじき事のと締めを見つるに17)

(이승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알기 위해 부처님이 정해 놓은 신세일 것이다. 그 부처님의 의향을 억지로 모른 척 하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임종 때인 해질녘에 이르러 비통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다.)

고인이 된 무라사키노 우에의 시녀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로쿠쥬인 겐지의 술회로 잘 알려진 대목인데, 「いまはの夕(임종 때인 해질녘)」란 표현이 <해질녘의 임종>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든 「煙ともならぬ夕べ」, 「迎ふる蓮を待はべるほどその夕べ」, 「いまはの夕」 등은 모두 이승의 종말을 묘사하는 비유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용례는 河添씨의 설명에 의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sup>18)</sup> 임종의 뜻을 지닌 「いまは」는 「임종의 시각(いまはの刻み)」, 「임종의 최후(いまはの閉め)」, 「임종의 때(いまはの時)」 등의 표현이 일반적이었는데 『겐지 모노가타리』를 기점으로 「해질녘」이 <죽음>을 상징하는 시간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질녘」과 <죽음>의 이미지가 이처럼 강하게 연관성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3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질녘」이라는 시간대는 무상감을 재촉하는 시간대로 해가 저무는 모습과 인생이 막을 내리는 모습이 중복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만엽의 노래의 「入り日」가 「ゆふ闇」으로 변용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겐지모노가타리』에 이르러 「해질녘」이란 표현은 죽음과

15) 『源氏物語(4)』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6 107p

16) 극락정토에서의 왕생은 上品 中品 下品の 세 등급으로 나뉘고 각 품은 거듭 上生 中生 下生으로 나뉘어 9단계의 삶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었다.

17) 『源氏物語(4)』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6 511p

18) 注14)참조

친숙한 용어들과 결합해 새로운 표현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실제로 『겐지모노가타리』의 작자인 무라사키시키키부는 남편 宣孝의 죽음을 맞아,

見し人のけふりとなりし夕よりなぞむつまきしほがまのうら  
 (함께 지냈던 그이가 화장터 연기로 사라진 해질녘 이후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시오가마노우라이구려.)

라는 애도가를 그녀의 가집에 남기고 있다. 작자는 아마 염전이 있는 「시오가마노 우라」를 여행하며 「해질녘」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이런 수목화의 한 폭 같은 풍경이 자신의 남편을 여윈 후로 더욱 친근하게 느껴져 이런 노래를 남겼을 것이다. 새벽녘의 어슴푸레한 밝음, 낮 동안의 눈부심과 비교해 「해질녘」은 해가 지는 서방정토란 세계를 연상시키고 그리하여 죽음과 친근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은 『겐지모노가타리』와 이후의 와카 내지는 산문 속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의 헤이안 후기 가집인 『센자이슈(千載集)』, 『신고킨슈』 등에서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은 표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124 此の世をば雲のはやしにかどでしてけふりとならんゆふべをぞまつ (千載集)  
 (이 세상을 떠나 구름숲으로 가려고 화장터 연기되는 해질녘을 기다리는 구나.)
- 922 おもひ出よゆふべの雲もたなびかばこれやなげきにたへぬけふりと(千載集)  
 (생각해다오. 해질녘의 구름이 드리우면 이거야말로 탄식이 끊이지 않는 나의 화장 연기라고.)
- 803 なき人のかたみの雲やしをらん夕べの雨に色は見えねど(新古今集)  
 (죽은 임의 흔적인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졌구나. 저녁 무렵의 비로 색 같은 없지만...)
- 1744 かくしつ夕べの雲となりもせばあはれかけても誰か忍ばむ(新古今集)  
 (이처럼 절에 숨어 지내는 채로 해질녘 구름처럼 죽는다면, 날 불쌍하게 여겨줄 누군가가 있을까?)
- 1233 はかなしといふにもたらぬ身の果てはただうき雲の夕暮れの空 (続後撰集)  
 (덧없다고 하기에 모자란 내 신세의 종말은 어두운 해질녘의 하늘과 같구나.)

세세한 검토를 할 지면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겐지 이후 <유우베>는 죽음과 관련지어져 많은 시가에 등장하고 있다. 夕煙나 夕雲에 소멸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또한 죽은 임의 흔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헤이안 중기 이후에 죽음에 대해 관조하고 응시하는

일이 급속히 심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근대 이후에도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 같은 작가는 시대, 환경, 날짜, 시각, 상황, 등장인물의 인상 등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소설 기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의 소설의 대부분의 작품의 시간 설정이 <유구레>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羅生門』  
或る日の夕方の事である. 一人の下人が羅生門の下で雨やみを待っている.
- 『手巾』  
…前略… 長い夏の夕暮はいつまでも薄明りを漂わせてガラス戸をあけはなした広いペランダ―はまた容易にくれそうなけはひもない.
- 『蜜柑』  
ある曇った冬の日暮れである.
- 『杜子春』  
ある春の日暮れであった.

<관련노트>를 참고하면 『羅生門』의 경우 초고에서 유구레란 시간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집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쿠다가와의 <해질녘>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던 것 같다. 작품에 따라 해질녘은 다양한 아우라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의 이미지는 헤이안 시대 작품에서 보아온 이미지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히라오카 토시오(平岡敏夫)씨는 아쿠다가와 자신이 『今昔物語』와 같은 헤이안 시대 산문작품을 보며 <해질녘> 시간대의 기이한 매력에 이끌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끊임없이 발굴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sup>19)</sup> 수궁할만한 지적이다.

이어서 아쿠다가와뿐만 아니라 모리오가이의 <기러기(雁)> <마이히메(舞姫)>, 다니자키준이치로의 소설 <아시카리>도 「해질녘」이란 시간대로 시작되는 소설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V. 끝머리에

이상 「해질녘」과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이 시간대가 일본인들에게 어떤 정서를 촉발하고 어떻게 인식되었는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19) 「王朝物語 の<夕暮>」 『国際日本文学研究集會會議録(第20回)』 国文学研究資料館 1996 184~185p



가장 먼저 연정을 환기시키는 노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만요슈』에서는 <해질녘>이란 시간대는 반드시 연정과 결부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고킨슈』 『고센슈』 『슈이슈』 등의 三代集까지의 와카를 검토하면 <임생각이 깊어지는 시간> <임이 그리워지는 시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옮겨져, 연정과 관계 깊은 감정을 환기시켜주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결혼제도가 <통혼>으로 여성이 있는 곳으로 남성이 방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시의 결혼제도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고독감과 무상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만요슈에서도 그 시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과 해가 저물어가는 과정이 비슷해 이를 비유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고독감이나 무상감을 노래한 와카는 헤이안 중기 이즈미시키부 이후의 노래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신고킨슈에서는 가을 해질녘을 소재로 고독감을 노래한 와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해질녘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임중이나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드물지만 『만요슈』에서도 검색되고 이즈미시키부 노래에서도 검색된다. 특히 『겐지모노가타리』에서는 <해질녘의 하늘> <해질녘 구름> <해질녘 연기>와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임중의 해질녘> 등 서방의 극락왕생의 의미로 다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죽음을 「해질녘」과 중복시켜, 죽음에 대해 관조하고 응시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근대에 이르러 아쿠다가와의 작품에 <유구레>란 시간대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들이 빚어내는 분위기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이후 모리 오가이 다니자키준이치로의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결코 지금까지 검토한 <해질녘>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도 더욱 천착이 필요하겠지만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参考文献】

- 伊藤博·久保木哲夫氏編 『和泉式部集全集—本文と総索引』(貴重本刊行会) 1987  
小島憲之 等 校注 翻訳 『万葉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6  
『古今集』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  
『後集撰』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  
『拾遺集』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  
『源氏物語』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  
『枕草子』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78  
河添房江 「源氏物語における夕べ」 『むらさき19』 武蔵野書院 1982年  
平岡敏夫 「王朝物語の<夕暮>」 『国際日本文学研究集會會議録(第20回)』国文学研  
究資料館 1996  
마루야마 겐지 지음 김난주 옮김 『소설가의 각오』 문학동네 1999  
犬養廉 等 編集 『和歌大辞典』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89  
新編国歌大観 編輯委員会 『新編国歌大観』角川書店 1985

## 要 旨

本稿では日本の古代和歌や散文にたくさん登場する<夕暮れ>に関する用語を中心としてこの時間帯が当時の古代人にどのような情緒を催し、どのように認識したかに関して調べて見た。

一番最初に取り上げられるのは恋情を喚起させる時間帯として詠まれている歌が多いということである。『万葉集』では恋情を喚起させる歌の割合が高くはないが、三代集である『古今集』『後撰集』『拾遺集』の和歌を検討してみると<物思いの優る頃><人が恋しくなる><来ない恋人を待つ>という時として詠まれて、恋情と関わる歌がその殆んどを占めている。

二番目は孤独感と無常感を呼び起こす時間帯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その始原は『万葉集』にまで遡られ、日の暮れ方と人生の暮れ方が類似して、人生の早すぎるうつろいを形象化するのに相応しかったからであると想われる。孤独感と無常感を詠んでいる歌は特に平安中期に大活躍した和泉式部歌からたくさんの用例が検索できるが、同じ趣向の歌が中世初期に編纂された勅撰集である『新古今集』からも窺える。

三番目は「夕暮れ」いう時間帯が死を象徴していることである。稀であるが『万葉集』和泉式部の和歌からもその用例が検索できる。特に『源氏物語』の中では死と関わる表現として<夕暮れの空><夕べの雲><煙の夕べ>など表現も多用されており、<いまはの夕べ>など死と関わる時間帯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用例が多い。これはこの時期になって夕暮れと重ねて初めて死に関して観照し、みつめることが多くなったからであると思われる。

近代に入って芥川竜之介の作品の始まりが「夕暮れ」という時間帯になっているものが多いという指摘があるが、これらが醸し出す雰囲気は画一的ではなくて多様である。以後森鷗外や谷崎潤一郎の作品でも「夕暮れ」の設定はかなり目立つが、これは今まで検討した「夕暮れ」の雰囲気と関係ないとはいえない。もっと詳しく調べて詮索すべきであるが、それについては今後の課題にしたい。

キーワード：夕暮れ、恋情、無常感、孤独感、死、伝統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68 군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10-2944-1868 연구실 063-469-4356  
E-mail : ysnam@kunsan.ac.kr